

영국의 U3A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사례

자율적 평생학습 공동체의 성공

황선준

1)2)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는 은퇴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독특한 형태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로, 1982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현재 영국 내에서만 약 1,000개의 U3A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약 4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U3A의 운영 방식과 특징

참여형 학습 모델

U3A의 수업에서는 전통적인 교사와 학생의 구분을 없앴다. 학습자들은 모두 수업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며,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회원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수업을 돕는다. 이러한 참여형 교육 방식을 통해 지식 전달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자율성과 자립

U3A는 외부 기관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된다. 외부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회원들 간의 주인의식을 고취한다. 또한 강의 장소는 지역 커뮤니티센터, 교회, 또는 회원들의 자택 등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 이는 고정 비용을 줄이면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사회적 학습과 연대

3)U3A는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활동과 연결한다.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회가 된다. 이를 통해 은퇴후에도 사회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고립을 피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성과와 사회적 의의

U3A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은퇴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사회적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실현된다.

4)U3A는 이처럼 자율적 운영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공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유용한 평생학습 모델이 될 수 있다.

개인 의견 및 적용 가능성

U3A의 사례는 평생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한 점,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점이 특히 인상 깊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 도입되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U3A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개인과

1) <https://m.blog.naver.com/dgeduon/221349343890>

2)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mgkgm_g0909&logNo=221329153291

3) <https://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7214>

4) <https://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7214>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학습의 성공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유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산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